

우면산 물폭탄, 관문사의 희생이 사하촌 지켜냈다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토사 뒤덮여
스님과 신도, 복구에 구슬땀... 불자 동참 절실

우면산 산사태를 온 몸으로 막아낸 천태종 관문사를 복구하는 일은 하나된 마음이 있기에 가능했다. 진흙 속에 불상과 법구를 닦아내고, 수행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불자들은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다.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3시간여 동안 내린 기습폭우, 400mm가 넘게 내린 비로 강남 일대가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천태종 관문사(주지 영제)는 산사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관문사는 오전 8시 경 지하 4층 주차장부터 침수가 시작돼 1층 종무소까지 물이 차오르고, 토사가 허리 높이까지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정전과 단전 사태가 벌어졌고, 통신망도 불통됐다. 관문사의 버스도 50여 미터나 쓸려 내려가며 크게 파손됐다.

이날 현장을 목도한 김희숙 보살은 "27

지하 주차장, 공양간 잠긴 레이
1층 종무실은 허리까지 토사가
정전·단수... 버스도 크게 파손돼
총무원장 스님도 직접 복구 참여

일 오전부터 갑자기 내린 비로 4층 옥상에서 계단을 따라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졌다. 상주하는 보살들과 법당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을 퍼내고 공양을 하고 올라가려는데 산에서 큰 소리와 함께 나무와 흙이 겹겹이 떨어져 마구 쏟아져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숙 보살은 "토사물이 지하 1층 강철문을 부수고 몰려드는데 그 순간 '부처님 살려주세요. 우리 관문사 떠내려 가나오'란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울먹였다. 김보살은 수일이 지난 날에도 그 당시의 충격이 컸는지 계속 울먹였다.

부처님의 가피일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아침공양 시간으로 지하1층에 위치한 공양간에 토사물이 밀려든다면 큰 피해가 예상됐다. 하지만 오전부터 물을 퍼내느라 지친 보살들을 위해 공양시간이 앞당겨졌고 당시 공양간에는 공양을 막 끝낸 공양주보살들과 일부 부전 스님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 보살은 "공양을 하지 채 하지 못한 스님들과 함께 손으로 흙을 마구 퍼냈다. 당일 하중일 밤을 먹지 않고 일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27일 오후 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드러난 관문사의 상황은 처참했다. 지하4층에서 1층은 물론이고 1층 전체에 무릎까지 오는 토사가 뒤덮였다. 지하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보일러 시설, 전기 시설은 모두 침수됐다.

하지만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들 200여명은 복구 작업에 나섰다. 저녁이 되자 직장에 나갔던 청년회 회원들도 힘을 보탰다.

이호상 관문사 청년회장은 "당시 100만 관음기도 정진 기간 중이라 퇴근 후 저녁에 관음정진을 하던 청년회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복구에 바로 참여했다. 일부 간부들은 회사에서 소식을 듣고 조퇴 후 수해복구를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날이 밝자 부산 등 전국에서 청년회원 50여 명이 수해복구에 참여했으며 삼룡사, 용광사, 화성사, 황덕사 등 전국 천태종 사찰에서도 생수, 작업용 장갑, 라면, 가스버너, 삼 등 구호물품을 보내왔다.

특히 BTN방송 출연 차 인근에 와있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주지 영제 스님도 28일부터 팔을 걷고 일손을 거둬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관문사에 투입된 송파경찰서 전의경들과 수방사령부 소속 육군57사단 장병들은 100여 명은 지하 2층에서 가득찬 토사를 직접 퍼올리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관문사 재무 성해 스님은 "우면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와 나무 등으로 관문사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관문사의 희생으로 아래 마을에는 피해가 가지 않았다"며 "현제 지하에는 가스가 차 수작업으로도 애로점이 많다. 하지만 스님과 신도는 물론 군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만큼 복구되리라 본다"며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우면산 인근 마을에서는 토사 매몰로 16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자가 잇따랐다. 또 2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주택 2000여 채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불교계에서는 우면산 인근 대성사와 BTN 본사 사옥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노덕현 기자

집중호우 피해 복구, 불자들 팔걷고 나서

서초동 우면산 일대를 비롯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복구를 돕기 위한 불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7월 28일 조계종 긴급재난 봉사대 선발대를 파견한데 이어 29일 오전 피해지역으로 100여 명의 본진을 파견했다.

긴급재난호봉사대 가운데 40여명은 축대가 무너지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피해를 입은 소요산 자재암으로, 조계종 봉사자 60여명은 서초동 우면산 일대와 침수 인근 침수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나섰다.

자재암은 축대가 무너지며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끊겨 고립돼 중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추가적인 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급구호봉사대는 수작업으로 복구에 적극 나섰다. 특히 봉사단 가운데에는 휴가중 봉사단의 파견 소식을 전달받고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봉사단에 합류한 이도 다수였다.

또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를 비롯한 서울 지역 사찰에서도 피해지역 수재민을 위해 긴급 생활용품 지원에 나섰다. 7월 29일 봉은사는 강남구



자재암 복구 모습

청에 생수 1만병과 쌀, 라면 등 생활구호품을 지원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조속한 복구를 통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하루 속히 아픔을 딛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주민은 "흙더미와 나무 등 처참한 환경으로 복구작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암담하고, 또 온갖것들이 뒤섞여 밀려들어온 토사에서 악취까지 나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달려와 도와주신 덕에 벌써 동네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다"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또 군중교구(교구장 자광)는 8월 2일 우면산 일대 산사태 복구에 나선 수방사령부 소속 장병을 찾아 위문하고 300명 분의 음료수와 빵을 전달했다.



27일 밀려온 토사로 관문사의 집기를 비롯한 각종 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천태종 신도들이 지하에서 손으로 토사를 퍼 올리고 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범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 목탁 혜은 부원장 : 금당 범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